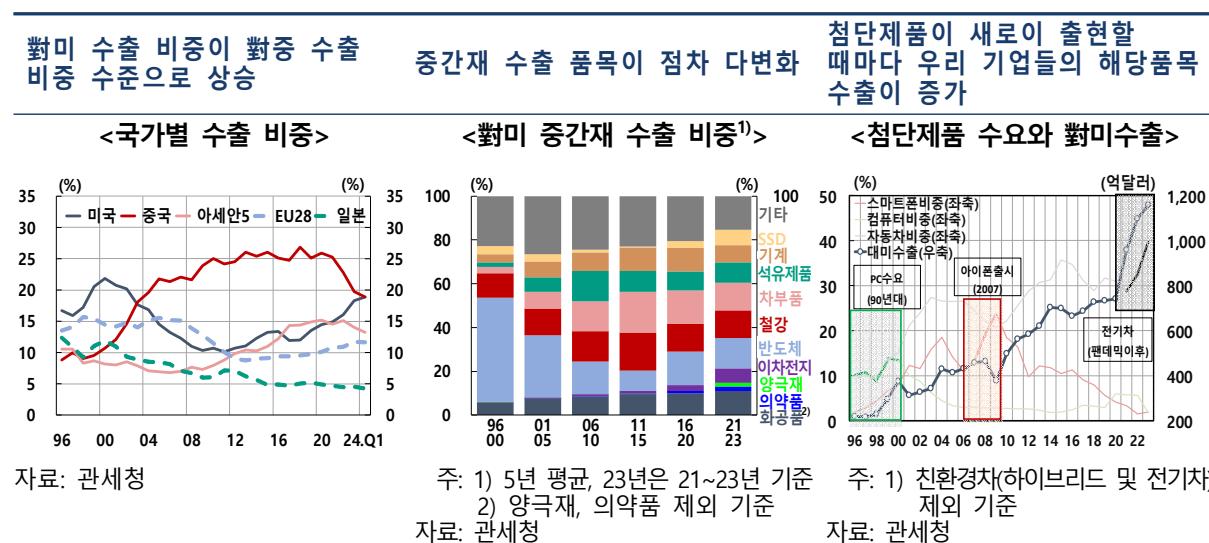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조사국 국제무역팀)

1.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對미국 수출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1/4분기 對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03.2/4분기 이후 처음으로 對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어섰다. 최근의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국내 친환경·인프라 수요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내 신성장산업(전기차, 반도체 및 배터리)의 미국내 FDI 증가는 향후 대미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對미 수출호조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산업정책(IRA 등)에 따른 투자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對미 수출구조는 ①전기차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②신성장·친환경 관련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고 다양성이 확대되었으며, ③2020년 이후 對미 수출과 미국의 소비·투자 등 내수간 연계성도 강화되었다.



3. 앞으로도 對미 수출은 당분간 견조한 美소비 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對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총수출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제조업 FDI 증가시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내 생산에 따른 對한국 수입유발률¹⁾이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對미 제조업 FDI 확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할 것이며, 그 동안의 중국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수입유발률은 자국내 1단위 생산으로 인해 유발된 타국의 생산물 수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생산의 對한국 수입유발률은 한국으로부터의 직접수입(직접 수입유발률)과 중국·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간접 수입(간접 수입유발률)으로 구분된다.

4.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對미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對한국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2017~18년중 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가 있다.

5. 또한 미국의 낮은 수입증간재 투입 및 높은 생산비용 구조를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對미 투자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수출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데다,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도 對미 FDI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그리고 對미 투자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첨단분야에 대한 국내투자 둔화, 나아가 인재유출(Brain Drain) 리스크도 우려된다.

6.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對미 수출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먼저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압력 완화뿐 아니라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이들 핵심인재의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려는 기업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